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	
	보도	2019.5.30(목) 17:00	배포	2019.5.30(목)	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7)	담 당 자	오 형 록 사무관 (02-2100-2937) 허 성 사무관 (02-2100-2655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	이 동 춘 팀장 (02-3145-7600)
	거래소 파생상품 본부장보 지 천 삼(051-662-2602)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임 재 준(051-662-2006)		이 정 의 부서장 (051-662-2610) 황 우 경 부서장 (051-662-2360)

제 목 : 「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」

1 정책토론회 개요

- '19.5.30(목)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양·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'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'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

<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 개요 >

- ▣ 일시/장소 : 2019.5.30(목), 17:00 ~ 18:00 / 부산 BIFC 62층 한국거래소 대회의실
- ▣ 주요참석자 : 금융위원장·자문관·자본시장정책관, 거래소이사장·파생상품시장 본부장, 금융투자협회장,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
- ▣ 주요 논의사항 : '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'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
- ▣ 주요 행사 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16:30~17:00(30분)	증권사·선물사 사장단 간담회	
17:00~17:20(20분) :	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	금융위원장
17:20~17:50(30분) :	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토론회 -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의견 -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업계건의	

< 핵심 과제 >

- ◆ 기본예탁금,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
- ◆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(코스피200 Weekly옵션, 국채 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) 상장
- ◆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(Positive→Negative)

1.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

□ '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건전화되는 모습

- 거래대금*은 '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, '15년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

* 일평균 거래대금(조원) : ('11)66.3 ('13)47.9 ('14)37.2 ('15)41.2 ('18)45.0

-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*은 지속 증가

*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(만계약) : ('11)11.0 ('13)12.0 ('15)12.4 ('18)17.6

□ 한편,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·개인 비중이 감소*하는 가운데,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

* 거래비중(% , '11→'18) : (개인)25.6→13.5 (기관)48.7→36.1 (외국인)25.7→50.4

-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*하고 있으며, 높은 신용 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

*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'11년 0.5조 달러에서 '17년 1.8조 달러로 증가

-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.9%, 지수상품의 90.8%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음

- 위기대응체계 선진화, 거래정보저장소(TR) 가동, 중앙청산소(CCP) 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 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

⇒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

2. 기본방향

< 기본 방향 >

- ◆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·제도를 개선하고,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
- ◆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성을 대폭 제고
- ◆ 중앙청산소(CCP)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,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쓸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

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

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통한 현·선 연계강화

3 대 전 략 12 개 과 제	전략1. 시장 수요/공급 기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 1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• 과제 2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• 과제 3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• 과제 4 시장조성기능 강화 • 과제 5 다양한 장내 파생상품 개발 유도
	전략2. 상품개발관련 시장자율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 6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 • 과제 7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 마련
	전략 3. 시장안정성 및 건전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 8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• 과제 9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• 과제 10 중앙청산소(CCP) 청산대상 확대 • 과제 11 거래정보저장소(TR) 운영개시 • 과제 12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쓸림 방지

1) 시장기반 확충

① (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)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을 완화

- (현행)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, 사전교육(20시간+10시간)과 모의거래(50시간) 필요

<현행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>

	일반개인(1단계*)	일반개인(2단계**)	전문개인
1그룹	2,000 ~ 3,000만원	3,000 ~ 5,000만원	500 ~ 1,500만원
2그룹	3,000 ~ 5,000만원	5,000 ~ 10,000만원	1,500 ~ 3,000만원
3그룹	5,000만원 이상	10,000만원 이상	3,000만원 이상

* 선물(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), 옵션매수만 거래가능

**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능

- (개선)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,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

-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·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,000만원(2단계 : 2,000만원) 이상에서 결정
- 사전교육 1시간,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 하여,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

② (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)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*

*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%는 폐지하되,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

-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he증권(선물)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
-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

③ (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)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*(Compression)를 도입

*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

- 킬 스위치*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,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

*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

④ (시장조성기능 강화) 시장조성의무를 확대*하고 인센티브를 강화

* (현행)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→ (확대)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, 차근월물

- 低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장조성기능을 강화

⑤ (신상품 상장)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*과 금리 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**상품을 도입

* 코스피200옵션 만기가 주1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

**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년물-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

2) 시장자율성 제고

⑥ (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) 파생상품의 상품명,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·상장체계*로 개편

* 금투업자 상품제안 → 거래소 검증(법규, 리스크, 정보제공 등) → 상장

⑦ (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)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*

*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(거래소 연구용역 추진)

- (현행)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이 미흡*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이 부족**

* 파생시세 정보 지원 사례는 없고 현물 시세정보만 민간에 제공

** 지수개발기관 등이 거래소 지수에 기반한 신규 파생결합증권(ETN 등) 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모든 재산권이 개발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

- (개선)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

3) 시장안정성 강화

- ⑧ (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) 결제재원 평가·관리체계 개선*,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**

*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, 환율위기를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(FSAP)

** 종합적인 손실복구체계 마련, 위기상황을 가정한 '비상대응 가상훈련' 강화

- ⑨ (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) 비현금성 담보자산(주식, 회사채 등)의 비중을 축소하고,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

- 급격한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, 관계 회사의 신용하락에 따른 전이효과*를 방지

* 증권사 결제불이행시, 관계회사의 신용도가 함께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하락

- ⑩ (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) 중앙청산소(CCP)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*으로 확대

* (1단계)기존상품(원화RS) 청산만기 확대 → (2단계)외환 신용 등 새로운 상품 도입

-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(CCP)청산 수요증가*에 대비하고 거래안전성을 확대

*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(G20합의)

- ⑪ (거래정보저장소 가동) 거래정보저장소(TR) 가동('20.10월)을 차질없이 준비

- ⑫ (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)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

- 시장편중방지를 위한 '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('19.1월)*'을 충실히 이행

*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,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상향 등

3. 향후 추진계획

□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

-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·증권사·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,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
-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

□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*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'21년 이후 시행

* 거래축약서비스,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

<별 첨> 1.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
2. 금융위원장 발표자료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-	--	---	---	---